

농진청, 국민생활 현장서비스 강화

농산물 안전 분석 등 증원 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신설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국민생활 현장서비스 강화를 위해 정원 14명을 2월 25일자로 증원하고,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를 신설했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번 인력 증원은 국민안전과 건강, 경제 활성화 등 대국민 현장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안전성 분석의 효율적 운영 관리,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관련 산업 활성화 분야에 인력(5명)을 증원했다.

농림위성센터 활용 정보제공, 고온극복 하우스 연구 인력 등 첨단 기술과 농업에 접목한 분야에도 인력(5명)을 보강했다. 국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도 총원해 새로운 꿀벌 품종개발과 농가 보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진청은 연구 개발된 새로운 농업기술이 농업인과 농업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국립농업과학원에 기술지원과도 신설했다. 아울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외래 병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활성화를 위한 '농촌진흥청·한국농수산대학 업무협약식'이 열린 지난달 26일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사진 오른쪽)과 조재호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사진 왼쪽)이 협약서에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해충 예찰·방제를 위해 상호 파견(각 1명), 운영해오던 한시정원을 정규화해 기관 간 협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농촌진흥청 순영상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최우선으로 먹거리 안전·건

강 등 생활밀접 분야의 인력과 조직을 보강해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새만금개발공사,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 개최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광문, 이하 공사)는 지난달 26일 공사 사옥에서 경영진과 실·처장 등 직원대표가 참석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경영방침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된 공사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정립하고, 안전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재해 없는 새만금 개발을 실현하고자 하는 공사 임직원의 의지를 담았다.

선포식을 통해 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등 각종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잠재 위험까지 예방하는 매뉴얼과 전국 최고 수준의 안전보건 프로그램을 적용해 재해없는 새만금 개발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작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안전보건 정책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안전기술처를 신설했다. 1차 2팀 규모의 안전기술처는 공사가 추진하는 건설현장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총괄하는 업무를 집중해 전담하게 된다.

강광문 새만금개발공사장은 "지난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서 "공사도 이러한 국민의 뜻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새만금 건설현장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한 사업장으로 만드는 데 전사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서부산림청, 해빙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불철 해빙기를 맞아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피해지와, 민가 주변 41개 임도(171km) 및 산사태취약지역(670개소)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해빙기에는 큰 일교차로 인해 땅속에 스며든 물이 얼고 녹기를 반복하여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산지사면, 절토사면,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이번 점검은 민가에 인접한 지역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으로, 재난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위해 임도의 배수로 정비와 수방기재비치 등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비상연락망을 구축해 할 예정이다.

조준규 청장은 "산사태 복구사업은 장마 등 여름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위기 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신협 '올해도 7대 포용금융 확대할 것'

전국 신협 당기순이익 3831억원 시현... 19년 연속 흑자 달성

신협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신협)가 지난달 26일 대전 유성구 덕명동 소재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48차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를 고려해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정부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지난해 신협은 범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내 경기 크게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전년 대비 8.3% 성장한 총 자산 110조9,000억원을 달성했다. 총 자산 규모는 7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7조8,000억원(11%) 성장했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대비 130억 원 증가한 3,831억원을 시현, 19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또한, 중앙회도 3,02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다.

기념사에서 김윤식 회장은 "지난해 그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신협은 자산 111조원, 여신 총량 79조원을 기록하며 서민 자금경색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해냈다"며 "당기순이익 3,831억 원 및 19년 연속 흑자라는 값진 결실은 전국 1만8,000여 신협 임직원의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지난달 26일 제48차 정기대의원회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노고 덕분이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윤식 회장은 경영 목표로 '사회적 선명성과 신인도가 제고된 최고의 금

융합동조합'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위한 조합 여신경쟁력 강화 ▲조합간 상생발전 위한 농촌·소형조합 지원 ▲비대면매체 활성화로 언택트시대 경쟁력 강화 ▲사회적·포용적 금융 확대를 통한 신협 정체성 강화 등을 실천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금융융합동조합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신협은 올해도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며 금융 취약계층 및 지역경제를 든든히 어부바할 계획이다. 김윤식 회장은 2018년 취임한 이래 고령화, 저출산, 고용위기, 금융소외의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시작한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는 지난 3년간 서민경제를 지탱하는 밑거름으로 성장했다. 이 같은 노력이 인정받아 2020년 10월 전세계 금융사 최초로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축복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한편, 이날 신협과 서민금융발전에 기여한 수주 임직원과 지난 해 새롭게 개관한 신협신협중앙연수원 건축에 기여한 건축추진위원회에 표창도 진행됐다.

/김윤상 기자

도내 제조업체,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 인식 확산

151개 업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 참여 희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2021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지원 사업 1차 모집 결과, 전북지역에서는 총 151개 업체가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도입신청 건수가 총 168건(월평균 14건)이었던 것에 비해 스마트공장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최근 지역 제조업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스마트공장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제조데이터 활용 기반을 통해 생산성이 30% 이상 증가하는 등의 효과를 보이면서 매출 확대 및 기업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 모집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은 선정평가 등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최종 결정되면, 기초단계는 7,000만 원, 고도화단계는 1~2데월에 따라 2억에서 4억까지 국비가 지원(총 사업비의 50%)된다. 또, 국비지원 한도내의 총 사업비 중 15%의 사업비를 전복도가 별도로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을 추가적으로 경감해 주고 있다.

전북지역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129개(기초92개, 고도화 37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다.

한편,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이 병행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는 대기업이 구축비용 뿐만 아니라 제조혁신 노하우를 중소기업에 전수함으로써 대기업의 제조경쟁력을 중소기업에 확산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은 지난 한 해 39개 업체가 동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그 중심에 제조혁신을 견인하는 스마트공장이 자리하고 있다"면서 "전북지역의 보다 많은 기업이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한발 앞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모집에 사업지원 신청하지 않은 기업은 2차 모집(4월중), 3차 모집(6월중)에 지원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 응원 동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는 필수노동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이 지난달 26일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노동을 펼치고 있는 여러 분야의 필수노동자를 응원하고 감사를 표하기 위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윤 회장은 이날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에 있는 필수노동자 그림과 응원메세지가 담긴 팸탈을 들고, 사진을 개인 SNS에 게시하고,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필수

노동자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필수노동자와 함께)를 덧붙였다.

윤방섭 전주상의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방역에 최전선에서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필수노동자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표한다”면서 “우리 상공인 역시 정부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하루라도 빠른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윤 회장은 릴레이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전북신용보증재단의 유용우 이사장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 김지혜 회장을 지목했다. /김윤상 기자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연장

국민연금공단, 6월까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3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와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를 6월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에게 1월분~3월분 보험료에 한해 부담완화 조치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다.

납부예외제도는 사업중단·휴직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인 조치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도 최대 5개월치(2021년 2~6월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연금보험료 징수예외 조치로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2021년 2월분에서 6월분까지 연금보험료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달 다음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하면 6월분까지 납부예

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이 신청하면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를 낮게 납부하고자 할 경우 납부예외 대신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 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 및 전국 공단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3개월 추가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힘든 시기를 버티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미래에셋 상생ESG 펀드 출시’ 기념 이벤트

전북은행, 오늘부터 실시

가입시 기프트콘 증정

결과는 7월 당첨고객에 통지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상생 ESG 펀드' 출시를 기념해 2일부터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근 바이든 美대통령의 친환경 정책, 한국판 뉴딜정책 등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전북은행은 고객 니즈에 맞춰 '상생ESG' 펀드를 출시했다.

이번 출시된 '상생ESG 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ESG펀드 중 유일하게 국내·해외 대표 ESG기업에 분산투자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창출하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세계 헤택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나 매월 불입하는 적립식투자를 활용해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기에 좋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작년 출시한 '상생플러스 펀드'의 성공적인 자리매김에 이어 최신 투자 트렌드를 반영한 상생의 두번째 시리즈인 '상생ESG 펀드'를 출시하게 됐다”며 “ESG관련한 지수를 벤치마크로 삼는 미래에셋의 정통 ESG 펀드인 글로벌 혁신 ESG, 글로벌 ESG사회책임 인덱스, ESG, ESG”



업 ESG에 자동 투자되는 모자형펀드인 '상생ESG 펀드'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우수한 성과를 내는 전북은행의 대표 펀드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시 이벤트는 상생ESG 펀드 등 '미래에셋 자산운용' 펀드를 가입하고 마케팅의 고객인 경우 자동 응모되며, 결과는 오는 7월 당첨고객에 한해 별도 통지 예정이다. 상생ESG 펀드는 전북은행 영업점,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폰뱅킹에서 가입 가능하며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고객센터(1588-4477) 및 모바일웹(https://bit.ly/3qj89S)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